

주식대표 세대교체... BBIG 주전, 제조·은행 '후보군'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시가총액으로 본 주력산업 변화

상위 10개 종목서 시총 100조 늘어
삼성바이오로직스 11.6조 늘어 1위
이어 셀트리온·네이버·LG화학
최대하락 10개 종목서 총 70조 ↓

올해 상반기 증시에서 바이오, 2차전지, 정보기술(IT) 업종 성장주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났다.

증가 상위 10개 종목을 합쳐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조업과 은행 등 기존 대장주들은 몸집이 크게 쪼그라들며 자리를 내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증시에서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지난해 말 28조6494억원에서 지난달 30일 51조2778억원으로 22조6284억원



(79.0%) 늘었다.

이어 10조원대 증가를 증가세를 보인 셀트리온 18조623억원(77.8%), 네이버 13조1207억원(42.7%), LG화학 12조2125억원(54.5%), 카카오 10조2천527억원(77.5%) 등이 뒤를 이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8조7843억원), 삼성SDI

(8조7675억원), 엔씨소프트(7조6839억원), 셀트리온제약(3조1천871억원), 알테오젠(2조83억원) 등의 시총 상승 폭도 눈에 띈다.

이들 10개 종목의 시총 증가 규모는 107조4997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 이른바 'BBIG'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

임)로 불리며 최근 증시 상승세를 이끈 대표적인 성장주들이다.

반면 기업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10개 종목의 상반기 시총 하락 규모는 70조원에 달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시총이 같은 기간 333조1138억원에서 315조245억원으로 17조993억원(5.4%) 떨어졌다.

신한지주(6조8314억원), SK하이닉스(6조5520억원), 현대모비스(6조1480억원), 삼성생명(5조9600억원) 등의 시총 감소폭도 컸다. KB금융(5조6966억원), POSCO(5조4491억원), 한국전력(5조3284억원), 기아차(4조9657억원), 현대차(4조87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코스피 시총 상위권에 속하면서 오랜 기간 한국 증시를 대표해 온 종목들이다. 이들 10개 종목의 시총 감소 규모는 총 69조7122억원에 달했다.

종목 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시총 상위 기업의 순위도 많이 바뀌었다. 10년

전인 2010년 7월 5일과 비교하면 시총 상위 10사 중 전 거래일(3일)까지 10위권을 지킨 곳은 삼성전자(1위 유지), LG화학(7위 유지) 뿐이다. 당시 2위였던 포스코는 17위까지 내려왔고, 3위였던 현대차는 언택트 대표주로 떠오른 카카오 등에 밀려 11위로 떨어졌다.

증시 주도 종목의 변화는 산업지형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Untact·비대면) 경제가 집중 조명을 받으며 변화를 가속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국내 증시의 정체 원인은 산업 성장의 성숙도가 높아진 제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범위의 경제 시대에 진입하면서 증시가 구조적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신협 대출구역 확대... 유사업권 경쟁 시작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권역 외 대출, 신규대출 3분의1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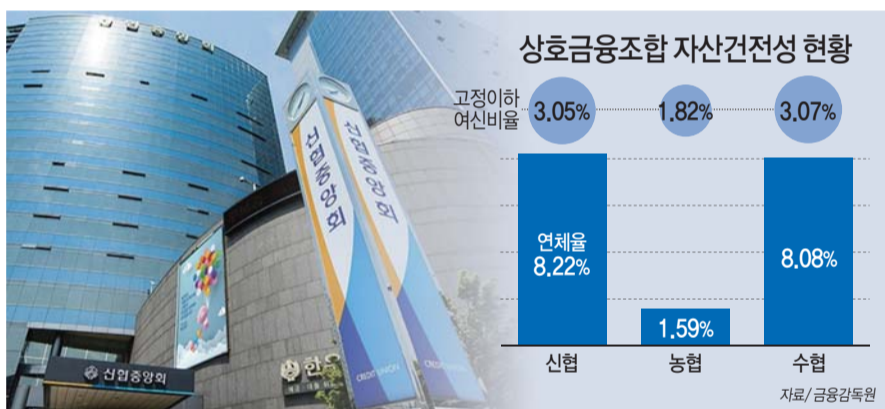
신협동조합의 대출가능 영업구역이 시·군·구 단위에서 10개 광역권으로 확대된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등 유사업권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을 보면 신협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은 신규대출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대출영역을 기초지자체로 제한했지만, 대출 권역을 확대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유사업권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사업권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4.77%로 지역농협(4.22%)와 새마을금고(4.58%)와 유사한 신협이 대출시장에 합류하면서 0.1%포인트라도 낮춰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금리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격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신협이 어떤 고객군을 중심으로 영업권역을 확대할 지 정해지지 않아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방에 기반을 두고 영업하는 업권에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늘어나 금리경쟁을 하는 한편 비대면 분야 영업에 주력하는 곳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협의 대출 업권 확대가 오히려 비영리 법인이라는 신협의 설립목적에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권역이 확대되면 자산규모가 큰 신협을 중심으로 지역 내 2~3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신협들이 인수합병 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지역 내 신협이 없어지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전국 신협 지역 조합은 66곳중 75%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의 규제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협은 순자본비율 2% 이상의 규제만 있을 뿐 유동성 비율에 대한 제약은 없기 때문이다. 신협의 연체율도 지난해 9월 기준 3.22%로 새마을금고(2.21%)나 지역농협(1.59%)과 비교해 높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상호금융권 관리 감독하는 부처가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나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하면 하나의 부처로 통일해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바이오 투자심리 美 대선 전까지 계속될 것"

>> 1면 '바이오 빅3 시총...'서 계속

이에 따라 코스피 내 바이오 3개 종목의 시총 합산 105조원을 넘겼다. 반도체 대장주이자 코스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62조1714억원)를 가뭏히 넘어섰다.

바이오 업종의 활약은 하반기에 더

거세질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금리 현상이 바이오 등 성장주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고, 코로나19가 하반기에도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해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추세는 백신의 효력이 증명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느정도 벗어나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 바이오 업종 투자에 대한 건조한 선택은 최소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상반기 위조지폐 129장... 전년비 19% ↓

만원권 60장, 5천원권 48장 순

올해 상반기 위조지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29장이다. 전년 동기 대비 31장(-19.4%), 전기 대비 3장(-2.3%)이 줄었다.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5만원권 위조가 줄었다.

위조지폐의 액면금액 합계는 140만원으로 5만원권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6만원(-47.4%) 감소했다.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만원권이 60장으로 가장 많았고 ▲5000원권 48장 ▲5만원권 11장 ▲천원권 10장 등의 순이다.

한은 관계자는 "만원권은 5만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조가 용이하면서 5000원권 및 천원권보다는 액면금액이 커 위조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000원권은 지난 2013년 5월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38장, 금융기관 87장, 개인 4장 등이다.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 87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68장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3일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많은 경찰서에 대해 한은 총재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상 연말까지 연장

고용부, 사업주에 최장 1년 지급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단가 인상이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임신,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해 중소기업

의 간접 노무비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졌다.

당초 올해 6월 말에 기한이었던 워라밸 장려금 지급액 인상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해 개별 근로계약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노동자 기준)은 올해 1~3월만 해도 월평균 1781명이었으나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원 대상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46.4%)이 가장 많다.

/한용수 기자 hys@